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제12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성료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Center에서 중앙연합회 주최로 제12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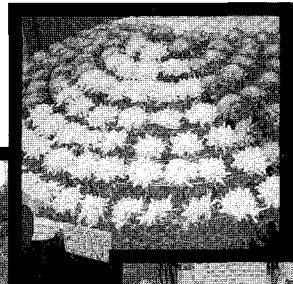
이 행사는 전년과 같이 2003 국제식품전시회에서 독립적인 「한농연관」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으뜸농산물 품평회 및 시상식, 전시관 운영과 함께 시·군연합회 및 회원들이 직접 판매·홍보하는 홍보관 운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기존 6개의 홍보관에 전년과

다르게 산하 연합회 및 회원들의 참여의지가 높아지면서 아쉽게도 참가의향을 밝힌 2곳이 탈락했으며, 1부스에 2곳의 연합회가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 농산물 홍보전략과 함께 회원들의 자발적인 판로개척에 대한 의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체 행사장소인 aTCenter가 소비자 및 바이어들에게 자리잡아 가면서 한농연의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도 그 인식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입증하는 예로 중앙연합회는 전시회에 출품된 농산물과 출품자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매년 제작해 행사장에서 배포하고 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400부를 제작했으나 전년도에는 이 리플렛이 남은 반면 올해는 행사 3일째 오전에 모두 배포되어 바이어들이 소개명패를 보면서 일일이 적거나 행사 후에 중앙연합회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까지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의 호응과는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년과 달리 언론보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농민단체인 한농연이 주최하는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의 위상은 소비자들 특히 바이어들에게 더욱 깊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제12회 전국 으뜸농산물전시회 수상 내역

구분	품목	주소	성명
대상	맵쌀(추청)	경기 김포시	이호석
대상	지평선 쌀(일미벼)	전북 김제시	김규철
대상	게르마늄 쌀(일미벼)	전남 영암군	김재복
대상	배(신고)	경북 영덕군	신재환
대상	포도(NBA)	충북 영동군	이계하
대상	오이(백다다기)	충남 천안시	김진오
대상	고추(수비초)	경북 영양군	최성호
대상	콩	강원 화천군	이준기 · 최애자
대상	대두(태광콩)	경남 창원시	장성숙
대상	미리오, 몬스테라, 노무라	제주 남제주군	강문수
금상	청주직지쌀(추청벼)	충북 청주시	이용기
금상	사과(홍로)	경남 거창군	김담
금상	참다래(SKK 22호)	제주 제주시	고봉주
금상	고추(국보)	충북 단양군	이동근
금상	마늘(의성마늘)	경북 의성군	황영록
금상	땅콩	경기 여주군	경건호
금상	선인장모듬	경기 고양시	이길재
금상	당귀(토당귀)	강원 평창군	이찬균
은상	쌀(일품벼)	경북 상주시	황민련
은상	고흥유자(재래종)	전남 고흥군	유병운
은상	영주부석사과(부사)	경북 영주시	김원상
은상	오이(산소오이)	경기 연천군	정병천
은상	양파(새로니온)	전남 무안군	박경수
은상	들깨	강원 화천군	정희섭
은상	국화	경북 칠곡군	왕웅건
은상	금산인삼(생삼)	충남 금산군	박병운
동상	동진1호쌀(동진1호벼)	충남 당진군	김권식
동상	참다래(헤이워드)	경남 고성군	김찬모
동상	용과(백색종)	제주 남제주군	박홍수
동상	무(가을김장무)	경남 거창군	변상원
동상	국화(분화)	서울 서초구	최홍규
동상	장미	충북 진천군	최상국
동상	고구마	전북 완주군	두용철
동상	고추(천하장사)	전북 임실군	엄재열
단체상	경기도연합회		



## 산하연합회소식

- 강원, '도입원 선거' 내년 1월 8일 이후로 연기
- 충북은 예정대로 실시

지난 16일 한농연중앙연합회 제 8차 결산이사회에서 한-칠레FTA국회 비준 동의안 저지를 위한 '비상 시국'이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이었던 대의원총회와 결원부회장 보궐선거 및 모든 행사일정이 국회가 마무리되는 2004년 1월 8일 이후로 모두 연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정근)에서도 오는 23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10대 임원선거를 2004년으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농연충북도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방형)에서는 예정대로에 9대 임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연합회의 선거일은 오는 22일이며 충북도농업인회관 3층에서 치러진다. 선출대상은 회장1인, 부회장4인, 감사2인으로 7명이며, 입후보등록일은 8일부터 9일 15시까지 2틀간 한농연충북도연합회 사무실에서 받을 예정이다. 후보자격은 본회 정회원 중 취임예정일 현재 만 3년 이상 재적중인 자이며, 신청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2통, 입후보자 추천서 1통, 입후보자 이력서 2통, 한농연 조직발전을 위한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연합회(전화043-217-1130) 선관위에서 안내하고 있다.

## 명분쌓기식 농업·농촌종합대책토론회,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발표한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 줄을 잇고 있는 농업개방대책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로, 지난달 24일 경기도를 시작, 9개도 지역농업인과 농업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5일 강원도와 26일 충북과 전남, 27일 경북, 지난 4일 경남지역토론회가 농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됐고 25일 충남, 26일 전북지역토론회는 정부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한농연 각도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토론회장을 검거하고 "119조 투융자계획은 한 칠레 FTA의 국회비준을 위한 급조된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119조 투융자 지원계획이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의 농림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농림예산 10%확보라는 대선공약에도 못 미치

는 계획"이라며 정부가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충남도 등 토론회가 개최된 지역에서도 "119조원을 순수 투자한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FTA를 처리키 위한 의도가 깔린 농민달래기 술수"라고 비판을 받고 중단되는 등, 지역순회토론회가 정부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농림부는 10년간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농업 농촌대책안을 보완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올 연말에 최종 확정, 발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허상만 농림부장관 주재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들과 농업 농촌대책 토론회를 가지는 등 전국 농과대학,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의견수렴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이 되고 실효성을 거두어, 뿌리 깊은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 그 밖의 농업계 소식

### 통외통위 압박투쟁 전개

지난달 20일 300여명의 농민들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압박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하루 전인 19일에 있었던 전국농민대회를 마치고 여의도에서 노숙투쟁 한 뒤, 다음날 통외통위의원 중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찬성했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항의방문을 진행한 곳은 다섯 군데로,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원, 유재건의원 사무실과 한나라당 박원홍의원, 김덕룡의원, 맹형규의원 사무실이었으며, 각 사무실 앞에서 한·칠레 FTA국회비준 반대를 외치며 투쟁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병력이 농민대열을 침탈, 여성농민 한명과 나이든 농민 한명이 경찰들이 휘두른 방패에 찍혀 앰블런스에 실려갔다.

### 여중생범대위, 촛불행진 1주년 기념행사

지난달 29일 여중생 범대위의 주최로 파병철회, 한미 소파 전면개정, 오만한 미국 규탄, 자주평화 1주년 촛불행진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천여명의 시민, 사회단체, 청년,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0일, 22일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을 처참하게 죽인 미군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국에 항의하기 위해 촛불 평화시위를 시작했고, 지난 26일로 1주년을 맞았다. 이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고 여중생범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수배, 소환과 관련한 탄압중지, 소파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쳤다. **만농연**